

# 2010학년도 중등교사신규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 도덕 · 윤리

2차 시험	2교시	2문항 50점	시험 시간 120분
-------	-----	---------	------------

### 수험생 유의 사항

1. 문제지(초안 작성 용지 포함)와 답안지의 전체 면 수와 인쇄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답안지는 문항당 2쪽(교시당 4쪽), 초안 작성 용지는 교시당 4쪽입니다. 답안은 문항당 2쪽 이내로만 작성하여야 합니다.
2. 답안지 모든 면의 상단에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성명과 수험 번호를 기재하고, 수험 번호, 문항 번호, 문항별 답안지 쪽 번호를 해당란에 '●'로 표기하십시오. '●'로 표기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 테이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3. 답안은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흑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작성하십시오(연필이나 사인펜 종류는 사용할 수 없음).
4. 답안 좌측 상단에 문항 번호와 답안지 쪽 번호, 과목명을 직접 쓰고 답안을 작성하십시오.

(예시) 국어 과목의 1교시 1번 문항, 2번째 답안지 표기

문항 번호 및 쪽 번호 표기란	
● ② (문항 번호)	① ● (문항 쪽 번호)
↑ ( 1 )번 문항의	↑ ( 2 )번째 답안지
과목명( 국 어 )	

5. 수학, 과학 과목의 답안지는 가운데 선을 그어 좌우의 2단으로 나누어 답안을 작성해도 됩니다.
6. 답안지에는 문항 번호 외에 문항 내용을 일체 옮겨 적지 마시오. 단, 하위 문항이 있을 경우, 하위 문항의 번호(1-1, 1-2 등)를 답안지 앞부분에 한 번 더 쓰고 답안을 작성하십시오.
7. 답안은 문항별로 답안지의 새로운 면에 작성하고(단, 하위 문항은 이어서 작성해도 됨), 해당 문항의 답안 작성이 완료되면 **답안 마지막 문장의 뒤에 반드시 <끝>이라고 쓰시오.**
8. 답안 초안 작성은 문제지의 맨 뒷부분에 있는 초안 작성 용지를 활용하십시오.
9. 답안 수정 시에는 해당 부분에 두 줄(=)을 긋고 수정 내용을 쓰시오.
10. 다음에 해당하는 답안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 연필로 작성한 부분
  - 수정 테이프나 수정액을 사용하여 수정한 부분
  - 답안란 이외에 작성한 부분
  - 답안란에 개인 정보를 노출한 답안지 전체
  - 답안란에 개인 정보를 암시하는 표시가 있는 답안지 전체
  - 문항당 답안지 2쪽을 초과하여 작성한 부분
11. 답안지 교체 시 시험 종료 전까지 답안 작성을 완료해야 합니다. 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은 부정 행위로 간주됩니다.
12. 답안을 작성하지 않은 빈 답안지도 성명, 수험 번호, 문항 번호, 문항 쪽 번호를 기재·표기한 후, 순서대로 정리하여 4쪽 모두 제출하십시오.

3. (가)의 관점에서 ㉠, ㉡, ㉢ 논제를 중심으로 (나)의 주장을 비판하시오. 그리고 도덕·윤리 교사가 (가)의 관점에서 ‘도덕’ 과목을 통해 ‘윤리적 보편성’을 주제로 수업할 때 <보기>의 A, B를 예시한 후, 그 근거를 각각 제시하시오. 【30점】

(가) 도덕 규범의 다양성과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대와 장소에 보편적으로 타당하고 적용 가능한 도덕 규범이 존재한다.

(나) 도덕 규범은 시대나 사회(문화)에 따라 상이하고 다양하며, 모든 시대 모든 사회에 보편 타당한 도덕 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도덕 규범들의 우열을 가려줄 보편적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 모든 도덕 규범은 평등한 타당성을 가지며, 시대나 장소에 따라 상대적이다. 윤리적 상대주의가 참이라면, 도덕 규범은 그것을 수용하고 있는 사회 내에서만 구속력을 발휘할 뿐, 다른 사회에 대해서는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 각자는 자기가 속한 사회의 도덕 규범을 따라야 하며, ㉢ 다른 사회의 도덕 규범에 대해서는 관용해야 한다.

<보 기>

도덕·윤리 수업에서는 도덕·윤리 교과 배경 학문의 ‘학문적 내용 지식’뿐 아니라, 학문적 내용 지식을 바탕으로 교수-학습 활동 전반을 포괄하는 ‘교과 교육학적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윤리적 보편성’ 수업에 필요한 교과 교육학적 지식은 윤리학적 내용 지식과 다른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

‘윤리적 보편성’ 수업에 필요한 지식	
‘학문적 내용 지식’	‘교과 교육학적 지식’
‘윤리적 보편성’의 개념	A: ‘윤리적 보편성’을 가르치는 목표
‘윤리적 보편성’의 논증 방법	B: ‘윤리적 보편성’을 가르치는 방법
⋮	⋮

4. (가), (나)는 시민이 정치 공동체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가), (나)에 나타난 근거를 각각 3가지씩 비판하시오. 그리고 정치 공동체의 권위에 대한 시민의 복종 근거를 ‘공공재’를 중심으로 정당화하시오. 【20점】

(가) 원래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며 독립되어 있으므로,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동의(同意)없이 다른 사람의 정치 권력에 복종하도록 강제될 수는 없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자연적인 자유를 포기하고 정치 공동체의 구속을 받게 되는 유일한 길은, 다른 사람과 결합하여 하나의 정치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동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정치 공동체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자신이 그것에 동의하였기 때문이다. 즉 약속을 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약속을 했다면 지켜야 하듯이, 우리가 정치 공동체의 형성에 동의했다면 우리는 정치 공동체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

(나) 일상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최초의 결사 형태는 가족이다. 그 다음 형태의 결사는 가족들이 모여 이루는 부락이며, 마지막으로 최종적이고 완벽한 형태의 결사는 부락들이 모여 이루는 정치 공동체이다. 정치 공동체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결사들의 완성이므로 모든 정치 공동체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 공동체만이 자족한 상태를 이룰 수 있다. 정치적 결사의 혜택을 타인과 더불어 누릴 수 없거나 이미 자족한 상태이므로 정치적 결사를 할 필요가 없는 개인, 즉 고립된 개인은 정치 공동체의 일부가 아니며 따라서 짐승이거나 신과 같은 존재일 것이다. 이렇게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치적 결사를 이루도록 되어 있으며, 모든 인간에게는 어떤 결사를 형성하려고 하는 잠재적인 충동이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아실현을 위해서 정치 공동체에 참여하여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

수고하셨습니다